

김장겸 사장 취임, “품격있는 젊은 방송”

전형적 유체이탈 화법, 사과와 반성은 없었다

김장겸 MBC 사장이 오늘 오전 취임식을 열고 취임사를 발표했다. 김 사장은 취임사에서 ‘품격 있는 젊은 방송’을 표방했다. 그러면서 “편향적 보도와 선정적 방송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저널리즘의 기본 자세를 확고히 하자”며 마지막까지 사실여부를 검증하는 것이 ‘품격’이라고 밝혔다. 또 “투쟁과 갈등에서 벗어나는 것이 젊은 방송”이라고 했다. 우리는 이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문제는 이 발언의 당사자가 김장겸 씨라는데 있다. 전형적인 ‘박근혜 대통령 식 유체이탈’ 화법이다.

첫째, 김 사장은 수많은 ‘편향적 보도와 선정적 방송, 왜곡 보도’의 당사자이다. 정치부장이던 2012년 대선 당시 아무런 검증 없이 안철수 대선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으로 기념비적 대형 오보로 망신을 자초했다. 보도본부장으로 재임하던 최근에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결정적 단서가 된 태블릿 PC의 증거능력에 대해 ‘가짜 의혹 보도’를 집요하게 이어갔다.

둘째, 김 사장은 극단적 진영논리로 공영방송 MBC를 “투쟁과 갈등”으로 몰고 간 당사자이다. MBC 뉴스를 극우 세력의 선전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구성원들에 대한 극단적 적대감을 드러내며 수많은 기자들을 징계하고 쫓아낸 사람이 김장겸 씨이다. ‘바깥 세상이 빛의 속도로 바뀌는’ 동안 그는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대신, 진영 논리와 노사 갈등에 빠뜨리는 데 앞장섰다.

그는 뉴스를 40년 전 유신시대 수준으로 퇴보시키고, 극우파의 전사가 되어 MBC를 투쟁과 갈등 속으로 몰아넣은 당사자이다. ‘품격 있는 젊은 방송’을 위해서는 이런 인사부터 축출하는 것이 먼저다.

오늘 취임식에는 임직원 300여 명이 참석했다. 한 번이라도 눈도장을 찍으려는 간부들이 줄을 서서 악수를 기다리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행사는 철저하게 외부인을 통제한 채 비공개로 이뤄졌다. 1시간 여 전부터 취임식이 열린 미디어센터 주변에는 청경들이 집중 배치됐다. 출입기자들도 출입을 막았고, 사내 공청 채널을 통한 방송도 막았다. 유례 없는 ‘밀실 취임식’이었다.



방문진, 임원 선임 강행

MBC의 마지막 부역자들,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방문진은 어제(27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MBC 본사 임원과 지역사 및 관계회사 임원 선임을 강행했다. 지난주 사장 선임 때와 마찬가지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고, 야당 추천 이사들은 모두 퇴장했다. 표결은 여권 추천 이사 6명만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이루어졌다.

임원 35명의 면면을 보면 이번 선임이 김장겸 씨와 극우파 방문진 이사들 사이의 자기 사람 챙기기, 민원 해결 ‘짬짜미’였음이 드러난다. 특히 정상적 사고가 불가능한 극단적 인사들의 중용이 눈에 띈다.

미래전략본부장에서 부사장으로 승진한 백종문 씨는 불법 해고와 회사 내부 정보의 유출을 자백한 해사 행위자이다. 역시 나란히 승진한 최기화 기획본부장과 오정환 보도본부장은 MBC 뉴스를 파탄시킨 장본인이다. 두 사람의 극단적, 비정상적 사고 방식은 건강한 상식, 민주주의, 다양성의 원리에서 심각하게 벗어나 있다. 권재홍 씨는 이 와중에도 관계회사 사장으로 살아남았다.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간이다. 극우파 심원택, 함량미달 김현종의 지역사 사장행은 정상적 사고가 불가능한 자들의 극단적 막장이다.

현재의 임원진은 탄핵에 직면한 박근혜 체제의 마지막 부역자들이다. 공영방송 MBC를 극소수 극우세력에게 갖다 바친 주역들이다. MBC 구성원들은 공영방송 종사자로서 국민의 명령에 따라 이들 공영방송 파괴자들을 반드시 축출할 것이다. 쫓겨난 뒤에도 이들이 저지른 행태 하나하나에 대해 법적, 정치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그 때 “나는 시키는대로 했을 뿐”이라는 변명은 제발 듣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또한 임원 선임 과정에서 부당한 청탁,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도 끝까지 파헤쳐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그렇게 처절하게 무너진 MBC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릴 것이다.

직책	성명
MBC 부사장	백종문
MBC 기획본부장	최기화
MBC 편성제작본부장	김도인
MBC 드라마본부장	이주환
MBC 경영본부장	이은우
MBC 방송인프라본부장	김성근
MBC경남 대표이사 사장	김일근
부산문화방송 대표이사 사장 부산문화방송 상무이사	허연희 김용성
대구문화방송 대표이사 사장	김환열 (재선임)
MBC충북 대표이사 사장 MBC충북 상무이사	김상운 박민순 (재선임)
광주문화방송 대표이사 사장	이강세
울산문화방송 대표이사 사장	조상희
MBC강원영동 대표이사 사장 MBC강원영동 상무이사	장근수 김진형 (재선임)
제주문화방송 대표이사 사장	최재혁
포항문화방송 대표이사 사장	오정우
여수문화방송 대표이사 사장	심원택
목포문화방송 대표이사 사장	김현종
MBC플러스 대표이사 사장 MBC플러스 부사장 MBC플러스 이사	권재홍 정호식(재선임) 김영삼
MBC씨앤아이 부사장 MBC씨앤아이 이사	성보영 김상진
imbc 대표이사 사장 Imbc 이사	정용준 전복용 (재선임)
MBC 아트 이사	이찬규

김재철·안광한 체제 부역자들의 끝없는 돌려막기 -‘MBC 파괴’ 기여도 따른 전리품 잔치 … ‘김장겸 친위대’ 완결판

어제(27일) 선임·내정된 MBC 본사 임원과 지역사, 관계사 사장들은 공영방송 MBC가 오늘날 총체적 파탄에 이르기까지 주도적 역할을 했거나 묵인·방조로 협조한 인사들이다. MBC를 친박·극우세력의 마지막 저항 기지로 삼겠다는 '김장겸 친위대'의 완결판이다. 어제 방문진 이사회에서 한 야당 추천 이사는 “지금 이들만 들어내도 MBC가 정상화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특히 백중문(부사장), 최기화(기획본부장), 오정환(보도본부장), 권재홍(MBC플러스 사장) 등 4인방은 김재철·안광한 체제를 거치며 MBC 파괴의 최전선에 선 장본인들이다. 이들의 중용은 이번 막장 선임 중에도 단연 최악으로 손꼽힌다.



백중문 부사장은 MBC의 공영성을 훼손하고 조직을 망친 주범이다. 지난해 극우 성향의 군소매체 관계자와 술자리에서 나눈 대화가 녹취록으로 공개돼 파문을 일으켰다. 이 녹취록에서 그는 술한 불법과 탈법, 월권 등의 행적을 낱말이 고백했다. 먼저 '최승호 PD와 박성계 기자를 증거 없이 해고시켰다'며 불법해고를 스스로 실토했다. 대규모 부당전보 인사와 관련해 'PD는 다 프로그램에서 배제시켰다' '라디오는 다 빨갱이다' 등의 망언을 쏟아냈다. 또 경력사원 채용 과정에 대해 지역 차별과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경력사원도 뽑고, 인사검증을 한답시고 (출신) 지역도 보고 여러 가지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일부가) 노조로 간다”고 말했다.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통제도 서슴치 않았다. “MBC가 지금 그런 것(BBK, 광우병 등) 전혀 못하게 지금 다 통제를 하고 있는 상태”, “국부인 이승만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라고 하면 만들 놈이 한 놈도 없다. 유일한 방법은 외주 밖에 없다”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하지만 '녹취록 파문'에 본사 감사국은 물론 방문진 이사회까지 그를 감싸고 사건을 축소하는 데 급급했다. 백중문 씨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에 불응해 소관 상임위로부터 고발될 예정이다. 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근 개최를 결정한 'MBC 노조탄압 청문회'에도 증인으로 채택돼 있다. 청문회 장에서 국민과 시청자 앞에 그간의 죄상을 고백하고 사죄해야 할 인사를 부사장에 기용한 것은 김장겸 사장이 공영방송 수장으로서 최소한의 염치나 체면도 내던졌음을 보여준다.

권재홍 MBC플러스 사장은 170일 파업 이후 보도부문 조합원들에 대한 해고와 무더기 징계, 대규모 부당전보 등을 사실상 주도했다. 회사 인사위원장을 겸하는 부사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인사평가 최하 등급 강제 할당과 강제 교육, 징계, 부당전보 등을 자행하는 '인사 폭거'를 남발했다. 보도본부장 시절 파업 당시 후배기자들의 항의 시위 과정에서 병원 신세까지 지는 이른바 '허리우드 액션' 블랙코미디의 주인공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당시 <뉴스데스크>는 그가 조합원들과의 '물리적 충돌' 과정에서 “허리 등 신체 일부에 충격을 입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을 담은 화면이 공개되자 '정신적 충격'에 의한 두통이었다고 말을 바꿨다. 노동조합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 결과 지난해 3월 11일 <뉴스데스크>는 첫 머리에 반론보도문을 방송했다. 김재철·안광한 체제를 거치며 승승장구해온 그는 최근 본사 사장에도 지원했다가 낙마했지만 MBC의 '알짜 관계사'인 플러스미디어의 사장 자리를 챙기는 수완과 생존력을 과시했다.

최기화 기획본부장은 김재철 사장 시절부터 사내의 보도·기획·홍보 관련 요직을 오갔다. 2010년 김재철 사장 취임과 함께 홍보국장에 발탁돼 그 해 '39일 파업' 당시 '김재철의 입'으로 활동했다. 이후 보도국 편집1부장과 취재센터장으로 일하다 기획국장을 거쳐 최근 2년간 보도국장으로 <뉴스데스크>를 '청와데스크'로 전락시켰다. MBC 뉴스의 신뢰와 영향력을 바닥으로 끌어내린 장본인이다. 특히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 많은 언론의 의혹 제기가 시작된 뒤에도 한 달여 간 사실상 눈을 감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의혹을 일부 시인하는 대국민 사과를 한 뒤에야 기획성 리포트를 내보냈고, 이후에도 대통령 입장을 전달하고 여야 단순 공방으로 처리하는 기사로 일관했다. 지상파 방송 중 가장 늦게 구성된 특별취재팀을 별 성과도 없이 가장 먼저 해체했다. 촛불 집회는 축소·왜곡하고, '태블릿 PC 논란'은 줄곧 침소봉대했다. 보도국장으로 그에게 뉴스의 판단 기준은 오직 '박근혜 정권의 유·불리'였다. 성완종리스트, 국정교과서 논란, 백남기 농민 사망, 사드 논란, 이정현 보도 개입 등 주요 이슈의 본질을 모두 회피했다. 세월호 관련 보도에서는 특별조사위 비판에 집중하고, 유족 관련 집회나 특조위 조사 방해 행위 등은 철저히 누락했다. 정치권 관련 보도에서도 '여당 분란은 축소, 야당 분란은 확대'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후배 구성원들에 대한 극단적 적대감과 통제 불능의 감정 상태도 심각하다. 2015년 9월 보도국에 비치된 <민실위보고서>를 문치째 찢어 훼손했다. 기자들에게는 민실위간사의 취재나 접촉에 응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잇따라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내렸다. 기초적인 소통 능력도, 상식에 근거한 판단 능력도 없다. 그는 조직의 중요한 자리를 맡을 기본적 자질이 없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상식 밖의 정신 세계는 오정환 보도본부장이 더 심각하다. 그는 2012년 파업 당시 그는 기자회 행사에 참석해 파업기금까지 내놓으며 보직사퇴를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휴가를 다녀온 뒤 슬그머니 업무에 복귀하는 기회주의적 처신을 선보였다. 그 덕분에 뉴스데스크 편집부장과 보도국 편집센터장, 취재센터장 등 보도국 내 핵심 보직을 차지했다. 보도부문의 '김장겸·최기화 체제'에 행동대장 노릇을 자임하며 MBC 뉴스를 망가뜨리는 데 앞장섰다. 파업 이후에는 MBC 뉴스의 공정성과 신뢰도 문제에 대한 지적에 맞서 '김장겸의 대변인'을 자처했다. 빈약한 논리와 저열한 우격다짐 투의 게시물로 사내 구성원들의 비웃음을 샀다. '최순실 특취팀'의 조기 해체에 대해서는 “해체가 아니라 엘시티 특취팀으로의 전환”이라고 말해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다. 부당전보 인사 문제가 제기되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배치됐다” “쫓겨나긴 왜 쫓겨난 거냐? 월급을 못 받는 거냐?” 등 상식을 벗어난 언어를 구사했다. 그가 지휘하게 될 MBC 뉴스는 정치적 편향성 이전에, 기본적 상식과 수준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심원택 여수MBC 사장 내정자는 극도의 이념적 편향으로 극우 세력의 하수인 역할에 충실해 온 사람이다. 2012년 파업 직후 <시사매거진 2580>을 담당하는 시사제작2부장으로 부임해 잇따라 물의를 일으켰다. 안철수 씨가 차기 대선 주자로 주목받던 당시 그는 <안철수, 이제는 답하라>라는 주제의 아이템 제작을 승인했다. 그러나 이튿날 아무 설명 없이 돌연 취재 중단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회의 도중 “안철수 원장을 다루는 것 자체가 편향이다” “2580 기자들은 모두 노조 골수 당원이다” “MBC 노조는 모두 친북 중북 좌파가 아니냐”라는 폭언을 퍼부었다. 이 발언에 항의한 기자 두 명은 '신천교육대'로 보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아이템에 대해서는 '국정원 전·현직 직원과 민주당이 결탁한 더러운 정치공작', '편향된 검찰이 정치적 의도로 편파 수사한 것' '파업에 참여한 기자는 이런 아이템을 할 자격이 없다'는 상식 밖의 발언을 쏟아냈다. 결국 이 아이템은 제작을 마쳐 놓고도 불방됐고, 이에 항의한 기자는 인사평가 최하 등급을 받은 뒤 잇따라 비제작부서로 좌천됐다. 취재 아이템 선정 과정의 일상적인 부당 지시와 검열 등의 문제를 외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2580 소속 두 기자는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또, 기자들이 '공정방송' 배지를 달고 화면에 등장했다는 이유로 2580 역사상 최초로 기자 얼굴이 삭제된 리포트가 방송되기도 했다. 심원택 씨는 스포츠취재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시간외수당 과다 신청으로 본사 감사국에서 지적을 받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현중 목포MBC 사장 내정자는 MBC 공영성의 상징이었던 <PD수첩>을 무력화하고 우수 교양프로그램들을 폐지하는 등 시사교양국의 '공중분해'를 주도했다. 2011년 <PD수첩>과 최승호 PD에 대해 '정치적 편향성' 등을 언급하며 시사교양국 강제 인사발령 사태를 촉발시켜 구성원들의 집단 반발을 일으켰다. 시사제작국장에 임명된 뒤에는 <PD수첩> 작가들을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일방적으로 전원 해고해 방송작가협회의 지탄을 받았다. 이후 2014년 조직 개편에서 시사교양국 해체를 방조해 시사교양 PD들은 현재 콘텐츠제작국과 시사제작국, 예능국 등으로 흩어져 있다. 이 과정에서 <불만제로> <원더풀 금요일> 등의 교양프로그램 폐지를 주도했다. 편성제작본부장으로 재임한 최근까지 시사 프로그램에서 '세월호' '위안부' 등은 방송 불가의 금기어가 됐고, 권권 비판 아이템은 철저히 막았다. 그러면서도 다큐멘터리 부서에는 본인의 이른바 '민원성' 아이템을 내려 보내 조직 안팎에 뒷말을 낳았다.

허연희 부산MBC 사장 내정자는 파업 참가자에 대한 탄압과 원선 '비위 맞추기'의 공로를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스포츠국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파업 직후 그는 스포츠PD 1명을 대기발령 시키고, 4명을 용인드라마아와 경인지사, 미래전략실 등으로 쫓아냈다. '보복인사'라는 구성원들의 반발에 대해 “업무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조치”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드라마아에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것으로 안다. 스포츠PD도 마케팅 능력을 키워야한다”는 억지 답변으로 구설에 올랐다. 그는 김재철 사장 시절인 2012년 런던올림픽 대회 기간 회사 소식지를 통해 경영진에 대한 '충성'을 과시하기도 했다. “런던올림픽 실무팀에 전달된 도시락이 타사에 비해 최고 수준이었다. 세탁비에 와인, 초콜릿 선물까지 나왔다. 권재홍 보도본부장이 직접 런던을 찾아와 격려감까지 전달해줬다”며 민망한 찬사를 쏟아냈다.

라디오PD 출신인 김도인 편성제작본부장은 독보적인 업계 1위였던 MBC라디오의 경쟁력을 추락시킨 주역이다. 라디오국 구성원들은 이우용 라디오본부장(전 춘천MBC 사장)과 김도인 부장이 라디오 부문을 좌지우지하던 당시를 최악으로 꼽는다. 2010년 당시 인기 프로그램이었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이 경찰 수뇌부를 비판하며 사퇴한 채수장 전 강북경찰서장을 인터뷰하기로 한 어느 날이다.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질문지를 보자'며 생방송 스튜디오에 난입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을 때 김도인 당시 부장은 오히려 경찰관 편에서 제작진을 몰아세웠다. 이 엄청난 사건을 회사에 보고조차 하지 않고 버티다가 논란이 되자 그는 “경찰관을 안내한 청경을 보호하려고 그랬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이후 그는 라디오 편성기획부장으로 자리를 옮겨 '밀실 개편'으로 구성원들의 원성을 샀다. 석연찮은 이유로 당시 청취율 선두를 달리던 프로그램들을 잇달아 퇴출시키고 역량 있는 진행자를 교체한 것이다. 개편 시기나 프로그램 폐지, 진행자 변경 등 어느 것 하나 일선 PD들은 철저히 배제된 채 이뤄졌다. 이런 인사가 본사 전체의 편성 정책과 기획을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에 선임된 것이다.

장근수 MBC강원영동 사장 내정자는 김재철 체제 이후 5년간 MBC 드라마의 경쟁력과 조직을 망가뜨린 인물이다. 그는 드라마본부장으로 재임하던 최근 국정농단의 한 축인 비선실세 정윤희 씨의 아들에 대한 캐스팅을 강요했다는 언론 보도로 도마에 올랐다. 파장이 확산되자 그는 '안광한 사장의 지시였다'는 취지로 해명했다가 번복하는 해프닝을 빚기도 했다. 의혹의 당사자인 정윤희 씨 아들은 반복되는 캐스팅과 고액 출연료 등으로 제작 현장에서는 오래 전부터 뒷말이 많았다. 그가 본부장 등 드라마의 요직에 앉아있던 동안 드라마국의 스타PD들이 줄줄이 MBC를 떠났다. <해물품은 달> 김도훈PD, <무신> 김진민PD, <커피프린스> 이윤정PD, <파스타> 권석장PD 등이 외주제작사 등으로 자리를 옮겼다. '드라마 왕국' MBC의 영광은 이미 망국의 빛바랜 추억으로 남은 지 오래다. MBC 드라마의 몰락과 케이블·중편의 약진이 겹치면서, 인기 작가의 시늉시스가 전달되는 우선순위에서 MBC는 이미 배제되고 있다.

이은우 경영본부장은 본사 경영 부문으로 입사했다가 퇴사한 뒤 SBS와 MBC플러스를 거쳐 김재철 체제에서 다시 MBC로 복귀한 이력의 소유자이다. 기획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7월 그는 노사협의회 자리에서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실토해 파문이 일었다. 조합 집행부가 '조합원의 승진 누락' 의혹을 제기하자 백중문 당시 미래전략본부장은 즉각 부인했지만, 배석한 이은우 당시 기획국장은 “노조가 늘 회사의 정책에 반대 논리를 갖고서 조합원들에게 주입시키고 있다”며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조합원들이 회사와 조직에 있어 승진을 시키는 데 있어 우호적인 점수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조합원들에 대한 승진 심사 불이익을 인정한 것이다.